

현실인듯 가상인듯... VR 에베레스트 등반에 식은 땀 '줄줄'



강원 속초 척산생활체육관에 조성한 실감형스포츠체험관 '스포츠 넥스트 레벨'의 개관 첫날인 1일 이용자들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생활체육을 체험하고 있다(왼쪽 사진부터). 클라이밍 초보자들이 쉽게 홀드를 잡으면서 오르고 있다. 부녀가 나란히 브레이킹을 배우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대한체육회와 강원 속초시가 손잡고 속초 척산생활체육관에 조성한 실감형 스포츠체험관인 '스포츠 넥스트 레벨'이 지난 1일부터 일반 이용객에게 문을 열었다. 개관 첫날 찾은 현장은 평소엔 쉽게 접하기 힘든 생활체육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 온라인 사전 예약을 했던 이용객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레벨업 스포츠 (2) 생소했던 생활체육,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디지털 혁명 시대다. 국민 건강에 중요한 생활스포츠도 언제까지 날씨와 환경에 제약을 받으며 할 수만은 없기에 디지털 변환이 시작됐다. 한정된 공간에서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생소한 종목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실감형 스포츠가 핵심이다. 디지털로 레벨업을 이룬 생활스포츠, 그 현장을 다녀왔다.

척산생활체육관 1층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 클라이밍, 브레이킹, 스케이트 보드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스포츠 넥스트 레벨에서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곳은 클라이밍이다. 특히 가상현실(VR)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코스를 기반으로 한 에베레스트(클라이밍) 공간의 대가들이 가장 길었다.

직접 체험한 VR 에베레스트는 '뒤통수나 진짜 같을까'라는 의심을 한 번에 지웠다. VR 장비로 들여다본 영상은 마치 현실 에베레스트로 옮겨놓은 듯했다. 영상 속 내용에 따라 이동하며 등산로 프를 잡고 오르고, 사다리도 올랐다. 가상이었지만 땀을 내려다보니 낭떠러지라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수직 빙

벽을 피켈(등반용 얼음 도끼)로 오르려는 코스는 무섭고 난도도 높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구역구역 올라간 뒤 정상에 올라 태극기를 꽂는 순간엔 진짜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다는 생각에 뿌듯함이 밀려왔다. 실제 이용객의 만족도도 높았다. 서울에서 왔다는 이재욱(13)군은 "빙벽

'스포츠 넥스트 레벨' 이용객 북적
빙벽 짙고 사다리를 타고 재미 있어
"등산 안 좋아했는데 체험 정말 좋아"
"이머시브 볼더링" 선 안벽 등반
"손가락 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브레이킹 선 수준별 안무 배워
"360도 카메라 촬영 영상 대만족"

을 짙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정말 재미있었다. 직접 산을 오르는 느낌이었다. 평소 알고 있었던 에베레스트를 현실처럼 경험해 신기했고, 무서움은 전혀 없었다. 원래 등산은 힘들어서 안 좋아했지만 이런 체험은 너무 좋다"고 말했다. 클라이밍의 또 다른 프로그램 '이머시브 볼더링'은 안벽등반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잡아야 할 '홀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이용객도 즐겁게 체험했다. 정승기(53)씨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구경할 때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안내가 없었는데 여기는 잡아야 할 곳에 불빛이 들어오니까 한결 수월했다. 어릴 때 벽타고 놀기만 했지, 클라이밍을 처음 해봤다. 손가락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험을 하다 무릎에 살짝 상처가 난 안성준(13)군은 "그래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하면서 "높이 올라가도 무섭지 않다"고 강조했다.

브 볼더링'은 안벽등반 기술을 쉽게 습득할 수 있었다. 화려한 조명으로 잡아야 할 '홀드'를 알려주기 때문에 처음 경험하는 이용객도 즐겁게 체험했다. 정승기(53)씨는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하는 걸 구경할 때 어디를 잡아야 할지 안내가 없었는데 여기는 잡아야 할 곳에 불빛이 들어오니까 한결 수월했다. 어릴 때 벽타고 놀기만 했지, 클라이밍을 처음 해봤다. 손가락 힘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이들이 참 좋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체험을 하다 무릎에 살짝 상처가 난 안성준(13)군은 "그래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네"라고 답하면서 "높이 올라가도 무섭지 않다"고 강조했다.

나란히 서서 댄스 호흡을 맞춘 부녀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기도 했다. 김문석(40)씨는 "딸이 요즘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많이 추길래 옆에서 같이 하고 있다"고 웃었다. 딸 김현서(9)양은 "음악이 신나서 좋다"며 "다음엔 친구들과 과도 함께 오고 싶다"고 했다. 스케이트보드 존에서는 30m 길이의 레일 위에서 기초 주행기술을 습득하고, VR 장비를 착용한 채 시뮬레이터에 올라 실제 선수가 촬영한 화면을 토대로 보딩 기술을 실감 나게 경험할 수 있다. 박원범(19)군은 "레일이 있고, 안내대로 발을 들고 달리면 초보자들도 하기 쉬울 것 같다"며 "커브를 돌 때 몸을 어떻게 기울여야 하는지, 어떤 느낌으로 타야 하는지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속초=클사진 김지섭 기자

고교 투수 최대어 장현석, 90만 달러에 LA 다저스와 계약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진 고교 투수 최대어 장현석(마산용마고 **사진**)이 LA 다저스와 계약했다. 장현석의 매니지먼트사인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는 9일 "장현석이 다저스와 계약금 90만 달러(약 11억8400만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이 100만 달러를 밑돌아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난해 피츠버그와 75만 달러에 계약했던 투수 고 출신 강속구 투수 심준석보다 많은 금액이다. 2010년대 이후로는 2010년 2월 사카고 컵스와 계약 도장을 찍었던 김진영의 120만 달러 이후 투수 최고 계약금이다. 2024 프로야구 신인드래프트 대

상 투수 중 '최대어'로 꼽힌 우완 장현석은 9월 열리는 신인드래프트에 참가하지 않고 미국으로 건너가 메이저리그에 도전하겠다고 지난 1일 선언했다. 복수의 팀이 장현석에게 러브콜을 보낸 가운데 투수 육성 과정과 방식 등을 정성 들여 설명한 다저스의 품에 안기게 됐다. 향후 아시아 게임 야구대표팀에 아마추어 선수로는 유일하게 뽑힌 장현석은 최고 시속 155km를 던지는 파이어볼러다. 강속구뿐만 아니라 슬러더와 체인지업, 커브 등 변화구도 골잘 구사한다. 최근에는 바리그에서 유행 중인 구종 스위퍼도 연마하고 있다.

100만 달러 밑돌아 기대 이하지만 작년 심준석 75만 달러보다 높아 시속 155km 던지는 파이어볼러 체인지업-커브 등 변화구도 좋아 "노력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 올해 고교야구 성적은 9경기에 등판해 3승 무패 평균자책점 0.93이다. 특히 290인칭을 던지며 삼진을 52개나 뽑아내는 위력적인 구위를 자랑했다. 고교 통산 성적은 21경기 6승3패 평균자책점 1.85다. 68.1이닝 동안 탈삼진 102개를 잡았다. 다저스는 국내 야구팬들에게도 친숙한 구단이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와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토론토)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바리그에 데뷔해 인상 깊

은 활약을 펼쳤다. 박찬호는 1994년 한양대 재학 시절 다저스와 계약한 뒤 9시즌 동안 84승 58패 평균자책점 3.77을 기록했다. 한화에서 뛰었던 류현진은 2012 시즌 후 포스트시즌(비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6년간 54승 33패 평균자책점 2.98의 성적을 남겼다. 현재는 다저스 마이네리그 팀에서 서울고 출신 우완 투수 최현일이 바리거의 꿈을 키우고 있다. 장현석은 리코스스포츠에이전시를 통해 "다저스라는 명문 구단에 입단하게 돼 영광"이라며 "저를 선택해주신 만큼 열심히 노력해 발전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장현석은 오는 14일 오후 2시 서울 드래곤시티호텔에서 다저스 입단 기자회견을 한다. 기자회견장에는 다저스 스카우트도 동석해 영입 배경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지섭 기자

보즈니아키, 엄마의 힘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가 8일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WTA 투어 내셔널뱅크오픈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후주의 김벌리버렐을 상대하고 있다. 몬트리올=AP 연합뉴스

두 아이 엄마 3년 7개월만의 복귀 115위 김벌리 버렐 2-0으로 완파
결혼과 함께 은퇴 후 두 아이를 출산한 여자테니스 전 세계 1위 캐럴라인 보즈니아키(덴마크 **사진**)가 3년 7개월 만에 코트로 돌아와 승리를 거뒀다. 보즈니아키는 8일(현지시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여자프로테니스(WTA) 투어 내셔널뱅크오픈 대회 이틀째 단식 1회전에서 김벌리 버렐(115위호주)을 2-0(6-2 6-2)으로 완파했다. 2010년 이 대회 우승자이기도 한 보즈니아키는 자신의 첫 서브 게임을 내주며 초반 잠시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안정을 되찾고 1시간 37분 만에 승리를 확정했다. 1990년생 보즈니아키는 2018년 호주오픈에서 커리어 첫 메이저 대회 우승을 하는 등 현역 시절 71주 동안 세계 1위로 군림하고, WTA 투어 단식에서 통산 30회 우승한 '절대 1강'이었다. 2019년 6월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인 데이비드 리(미국)와 결혼한 보즈니아키는 2020년 1월 호주오픈 3

회전에서 탈락하며 코트를 떠났다. 그는 이듬해 6월 딸 올리비아를, 지난해 10월에는 아들 제임스를 출산했다. 행복한 가정 생활을 이어가던 보즈니아키는 지난 6월 한 패션잡지와 인터뷰에서 "코트를 떠나 있던 3년 동안 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며 사랑하는 두 아이의 엄마가 됐다. 하지만 나는 아직 목표가 남아 있다. 내 아이들에게 '나이와 역할에 상관없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싶다"며 복귀를 예고했다. 이후 그는 남자 테니스 세계 6위 홀게르 루네(덴마크)와의 연습 영상을 자신의 SNS에 올리기도 했다. 보즈니아키는 2회전인 32강전에서 올해 워블턴 챔피언 마르케타 본드로우소바(10위체코)를 상대한다. 이 대회에 이어 웨스턴 앤드 서던 오픈, US오픈에도 와일드카드 자격으로 출전할 예정인 보즈니아키는 "3년 넘게 코트를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다소 긴장했지만 내가 사랑하는 몬트리올에서 복귀전을 치러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지섭 기자

유일한 우승국 일본·다크호스 콜롬비아... 여자월드컵 8강 대신 확정

이번엔 없었다. 유럽의 '강호'들이 아프리카 돌풍을 잠재운 가운데 '우승 후보' 일본과 '개최국' 호주, '다크호스' 콜롬비아가 2023 국제축구연맹(FIFA) 호주-뉴질랜드 여자월드컵 8강 레이스에 돌입한다. 11일(한국시간) 스페인-네덜란드, 일본-스웨덴이 격돌하고 12일엔 호주-프랑스, 잉글랜드-콜롬비아가 맞붙어 준결승 진출팀을 가린다. 유럽 국가 5개국과 아시아 국가 2개국, 남미 국가 1개국 이름을 올렸다. 눈여겨볼 팀은 일본(FIFA 랭킹 11위)이다. 8강 진출국 중 유일하게 우승(2011년)을 경험한 일본은 조별리그에

서 무실점 3전 전승의 압도적인 기량을 뽐내더니 노르웨이(12위)와 16강전(3-1 승)까지 파죽지세로 4연승을 달리고 있다. 특히 조별리그와 16강을 거치며 가장 많은 골(14골)을 넣을 만큼 미야자와 히나타(5골-미야비 센다이)를 필두로 한 화력이 무섭다. 유럽 국가 및 아프리카 선수들에 비해 피지컬이 약하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탄탄한 수비력과 효율적인 공격력을 앞세워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다. 일본이 상대할 스웨덴(3위)의 기세도 매섭다. 조별리그에서 이탈리아를 5-0으로 완파하던데, 16강에선 FIFA 랭킹 1위이자 사상 첫 여자월드컵 3연패

내일 스페인-네덜란드, H-스웨덴을 노렸던 미국을 승부차기 끝에 몰아냈다. 스웨덴도 조별리그 3전 전승으로 총 9골을 몰아치며 올라온 강팀. 일본과 스웨덴의 8강전은 사실상 결승전으로 꼽힌다. 잉글랜드(4위)와 프랑스(5위), 네덜란드(9위)는 각각 나이지리아,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프리카를 잠재우며 8강에 올랐다. 특히 프랑스는 자메이카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무승부(0-0)로 흔들렸지만, 남미 강호 브라질에 승리(2-1)하던데 16강에선 모로코에 4골을 몰아치며 승승장구 중이다. 개최국의 자

존심을 세운 호주와 프랑스의 8강전도 볼거리다. 호주는 덴마크와 16강전에서 7만6,000명 관중의 일방적인 응원에도 힘입어 승리했다. 유일한 남미 국가로 8강에 오른 콜롬비아도 무시할 수 없다. 조별리그에서 세계 2위 독일(2-1 승)이 집어쓴 테일조하더니 16강에선 자메이카를 침몰시켰다. 골든부츠(득점왕) 경쟁도 뜨겁게 달아올랐다. 현재 일본의 미야자와가 5골로 단독 선두에 오른 가운데 네덜란드의 질 로르트(맨체스터 시티)와 프랑스의 카디디아투 디아니(파리생제르맹)가 각각 4골로 2위에 올랐다. 강은영 기자